

구역:

이름:

<p>5월 20 월요일</p>	<p>시편 73편-78편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77편) <input type="checkbox"/></p>	<p>*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지난주에는 주로 다윗의 시를 읽었지만, 이제는 여러시인이 등장합니다. 특히 73편부터 78편까지 여섯 편의 시는 전부 다윗 시대에 성전의 찬양대를 섬겼던 아삽이 지은 노래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환난을 당한 언약 백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데, 다윗과는 또 다른 방법과 언어로 그 풍성한 은혜를 노래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버리실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77편), 그럼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73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78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셨는지를 긴 노래로 들려줍니다 이제, 아삽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 봅시다.</p>
<p>문제</p>	<p>“곧 여호와와 그의 일들을 ()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p>	
<p>5월 21 화요일</p>	<p>시편 79편-84편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84편) <input type="checkbox"/></p>	<p>* 하나님이며, 빛을 비추소서: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할 때, 그래서 비정상이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비정상을 어떻게 바로 잡으실까요? 아삽의 시 다섯 편(79 - 83편)에서는 하나님의 개입과 재조정(3장 lesson 5 참조)을 바라며 부르짖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을 지은 시인들도 우리처럼 다양한 상황을 겪다가 하나님께 분개하며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잠시 좌절해도 영원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듯 보여도 그들이 누리는 것은 일시적이고 절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악인의 궁정에서 천일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아름답다(84편)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p>
<p>문제</p>	<p>“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이 있나이다”</p>	
<p>5월 22 수요일</p>	<p>시편 85편-90편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86편) <input type="checkbox"/></p>	<p>* 내 구원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편 89편을 끝으로 3권이 끝나고,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으로 4권이 시작합니다. 시편 85편부터 90편까지 여섯 편의 시인들은 저마다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노래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인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언약을 기억하며 백성을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섯 편의 시인들은 하나님의 그 한결 같으심에 의지해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세상의 영화는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처럼 주의 도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p>
<p>문제</p>	<p>“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p>	

<p>5 월 23 목요일</p>	<p>시편 91 편- 96 편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96 편) <input type="checkbox"/></p>	<p>*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앞서 읽은 시편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시가 많았지만, 91 편부터 96 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시가 많습니다. 앞선 시편의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여섯 편의 시인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시인들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악인을 가차없이 벌하시지만, 주의 백성을 돌아보시며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시인들은 우리에게 기꺼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가자고 권유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세상의 주이시며 우리의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시인들의 노래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시다.</p>
<p>문제</p>	<p>“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을 송축하며 그의 ()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p>	
<p>5 월 24 금요일</p>	<p>시편 97 편-102 편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102 편) <input type="checkbox"/></p>	<p>*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97 편부터 102 편까지 여섯 편의 시 중에는 표제가 조금 특별한 시가 한 편 있는데, 바로 102 편입니다. 이 시의 표제는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라는, 조금 특별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 눈길을 끄니다. 그러나 97 편부터 101 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주된 내용이라는 상반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음을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상한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 우리는 변화무쌍한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며 때로는 감사와 찬양으로, 때로는 근심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특권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p>
<p>문제</p>	<p>“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셨도다”</p>	
<p>5 월 25 토요일</p>	<p>시편 103 편-109 편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107 편) <input type="checkbox"/></p>	<p>* 여호와께 감사하라: 100 번째 시를 기점으로 남은 50 여편은 분량이 조금 많은 편이라 성경 읽기를 꾸준히 진행할 때는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들이 왜 이렇게 길고 꾸준한 호흡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조심스레 살펴본다면, 시편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103 편부터 109 편까지 일곱 편의 시는 주로 감사시입니다. 시인들은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와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가 담긴 시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p>
<p>문제</p>	<p>“그가 그의 ()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p>	

- 매일 스케줄에 따라 성경을 읽으시면서 box 에 체크를 해 주시고 (시간이 부족하실 때는 핵심장), 본당 안내석과 친교실에 준비된 성경문답지 수거함에 **노란 봉투와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